

칼럼

장기채 주필



계절의 여왕 오월 예찬

5월이다.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청자(靑瓷)빛 하늘이 / 육묘정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 연못창포 잎에 / 여인네 댁시위에 /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 라일락 숲에 / 내 짧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正午) /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 밑물처럼 가슴 속으로 물려드는 향수를 / 여찌하는 수 없어, / 눈은 먼 데 하늘을 본다. 노천명의 시 '푸른 오월'이다.

산천은 연두색에서 점점 녹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진녹색으로 변하여 싱그러움을 더한다.

오월은 개구쟁이들에게는 어린아날, 부모님에게는 어버이날, 선생님들에게는 스승의 날, 행사가 소복소복 쌓여있다. 모두가 시끌벅적 마음은 들뜨게 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뛰놀게 하자. 답답한 공부방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에서 해방시키고 폭력이 난무하는 컴퓨터 게임에서 평화와 평온이 깃든 숲속으로 유인하자.

5월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달이다. 하지만 '봄은 봄이로되 정령 봄은 아니로다.'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팝나무 하얀 꽃들이 선그는 상큼한 계절이지만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춥고 떨리는 엄동설한이다.

개나리 진달래가 어떻게 피고 어디로 갔는지 벚꽃, 목련의 울 자태는 어찌했는지 서로 인사도 없이 2018년 봄은 그저 그렇게 가버린 것인가. 성숙한 생명과 은밀한 욕망 속에 피어난 꽃 잎사귀 하나, 꽃 한 송이 풀 한포기의 잔잔한 그 느낌은 무엇에 또 비유하겠는가. 수풀은 녹음으로 짙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친다. 모진 겨울을 견뎌 대지는 생명의 찬란함을 함성으로 노래한다.

5월은 바쁜 삶 중에서도 잠시나

마 존경과 사랑으로 가슴을 적시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가족과 이웃의 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어도 5월 한 달 만큼은 행복을 가정에서 찾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버이날은 1년에 단 하루, 나머지 364일은 자식의 날이다. 당신님의 가슴 하얀 꽃들이 선그는 상큼한 계절이지만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춥고 떨리는 엄동설한이다.

근대 계몽주의자이며 교육자인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였다. 또 자연에 늘 감사하고 자연에 친근히 접근하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감에 인성교육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아이들의 가장 훌륭한 장난감은 모래와 흙'이라고 설명했다.

5월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연과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가자. 아름다운 모두가 당신의 것이고 모두가 나의 것이며 모두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꽃밭이다. 가족은 더 소중한 꽃이다.

이제 수련거리고 쓸리던 무거운 짐 잠시 내리고 5월을 보듬어 보자. 지금 누군가는 슬로, 누군가는 약으로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흐르는 시간을 통해 삶의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자.

누구나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고, 오늘은 내일의 스승인 것처럼 살아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해 가장 뿌듯한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시간일 것이고, 가장 달콤할 때는 땀을 흘린 뒤 갖는 휴식 시간이며, 가장 즐거운 때는 흥겹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때 일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대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 아름다운 꽃을 보듯이 세상을 반기며 보듬어 보자.

그윽한 향기, 소중한 인연, 언제나 변함없이 오월의 세상을 향해 축복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보자! 그러다 보면 행복의 꽃들이 살그머니 우리 곁에 찾아와 향기로운 꽃내음을 피울 것이다.

社說

어린이 야외 사고 예방해야

아외 활동이 많아지는 5~6월은 어린이 낙상·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간편한 옷을 입히고,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놀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야외에서의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5년 170개 병원의 입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신체 손상으로 입원한 14세 이하 어린이 1만379명 중 36.5%인 3천786명이 낙상이나 추락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추락사고를 당한 어린이 중 남자가 2천557명(67.5%)으로 여자 어린이(1천229명, 32.5%)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발생 시기는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5월과 6월이 각각 10.6%로 가장 많았다. 가을인 9월과 10월이 각각 9.4%, 9.5%였고, 4월이 9.3%로 뒤를 이었다.

2011~2016년 23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낙상·추락사고 16만7천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주거지와 놀이터·운동장이었다.

0~4세 영아는 주거지(72.2%)에서, 5~9세는 주거지(35.8%)와 놀이터·운동장(26.9%)에서, 10~14세는 놀이터·운동장(31.6%)에서 주로 사고가 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가 놀이할 때 바지나 운동화 등 간편한 옷을 입혀주고 장난구나 목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놀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놀이터에서는 움직이는 그네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미끄럼틀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며 위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가족단위 야외 나들이가 많은 계절이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似 蘭 斯 馨 (이 란 스馨)
▷ 뜻: 난초(蘭草)같이 꽃다운니 군자(君子)의 지조(志操)를 비유(比喻·譬喻)한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꽃가루 알러지 예방 방법

꽃구경을 가기 좋은 계절이 됐지만 외출후 콧물, 재채기, 기침, 눈 가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알러지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여러가지 물질이나 생물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증상 자체로 생명에 치명적일 때는 드물지만 인구의 20~25%가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꽃가루 알러지는 주위에 꽃이 안 보여도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예민한 환자는 증상을 보인다.

꽃가루 알러지는 어려서부터 가

지고 있는 병이 아니고 원인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병이 생기는 것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증상과 비슷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감기로 착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경우 감기는 일년에 두세번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감기 증상의 대부분은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다.

알러지는 개인에 따라 어떤 꽃가루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지 피부시험 혹은 혈청내 항체검사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꽃가루는 크기가 보통 20µm 이

상으로 커서 코에서 대부분 걸러므로 폐로는 잘 안 들어가서 주로 알레르기비염과 결막염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천식 증상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기 비슷한 증상이 심해서 기침이 오래 가거나 호흡곤란, 쌉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천식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알레르기 환자가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꽃가루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과 창문을 닫아두고 방안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꽃가루 수가 가장 많을 때인 화창한 날 아침과 오후는 외출을 삼간다.

공기 중 꽃가루 수는 비 내린 직후, 저녁, 밤중이 가장 낮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며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시작되기전 2~4주부터 계절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면 어려움이 지날 수 있다.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때 원인 꽃가루를 3~5년간 규칙적으로 몸에 주사해주는 면역치료가 좋다.

위와같이 꽃가루 알러지를 예방한다면 조금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이윤석 / 영광소방서 홍흥119안전센터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It includes a logo for 'Korea's Happiness' and a list of benefits like 'I can think of myself more' and 'I can understand others better'.